

Issue Comment

- ✓ NewAge FLNG 하청 건조자로 거론되는 중국 조선소
- ✓ 해양플랜트 수주잔고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비중은 높은 편
- ✓ 유가도 하락하는 가운데 건조 경쟁력도 위협 받고 있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국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건조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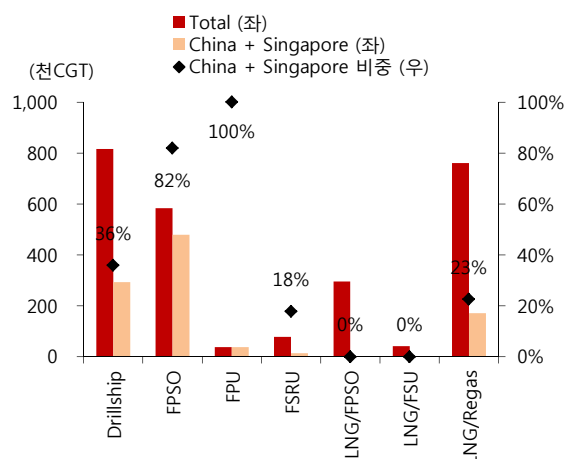
최근 네덜란드의 SBM Offshore와 일본의 JGC 컨소시엄이 2017년 수주한 카메룬 NewAge FLNG 건조 하청 계약자로 중국 아드를 고려 중이라는 Upstream 보도가 있었다. Top-side는 중국의 COOEC가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고, Hull-side는 중국 상해의 Hudong Zhonghua 조선소가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싱가포르의 Sembcorp Marine과 중국 조선소가 글로벌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한국 조선소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독식하면서부터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건조 경쟁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다. 실제로 Clarksons Research 기준 해양플랜트 수주잔고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소의 비중은 선종별로 다르지만 주요 선종인 드릴십과 FPSO에서는 이미 각각 36%와 82%에 달한다.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소의 건조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최근 유가가 다시금 하락 전환하며 해양 플랜트 발주 문의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소의 건조 경쟁력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중국 조선사와 FLNG 건조 하청 계약을 맺을 예정인 SBM-JGC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수주잔고는 높은 수준

FLNG partners close to selecting yards

Industry sources said SBM, which leads the consortium, has been in detailed commercial and technical discussions with Shanghai Hudong Zhonghua Shipyard about the FLNG unit's hull, which is more of a barge than a conventional ship-shaped vessel. In addition, project watchers said the SBM-JGC consortium will most likely award topsides construction work to China's Offshore Oil Engineering Company (COOEC). (후략)



자료 : Upstream (2018-06-14), SK 증권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